

대구 · 경북 ucc를 위한 발걸음

박○균(대구○○초등학교)

1. 참가 학생

가. 동아리명 : J.T.W.B

나. 동아리 소개 : J.T.W.B는 대구 · 경북의 명소를 찾아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2. 필요성 및 목적

가. 「내 고장 대구 · 경북 다시 보기」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 · 경북의 알려진 명소에 대해 탐구하고 홍보를 낼 수 있는 콘텐츠인 ucc를 제작한다.

나. 대구 · 경북의 탐험해보고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면서 대구 · 경북을 더욱 사랑하고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다. 대구 · 경북 ucc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평가받으면서 장기간 동안 촬영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라. 서로가 가고 싶은 장소들을 선정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속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제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3. 동아리 활동 설계 및 운영

구분		활동 내용	평가	연계 교과
차시	단계			
1	구성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 경북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 활동 방향 안내하기 - 구성원 모집하기 	구성원 확정하기	창체
2-4	여행지 선정 및 소개자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 경북에 가볼만한 곳 선정하기 • 피피티 자료 제작하기 - 가고싶은 곳 정해서 피피티 발표하기 - 최종 여행지 선택하기 	피피티 평가하기	사회, 실과
5-6	여행 계획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 계획서 작성하기 - 모둠원과 협의해서 날짜정하기 	여행 계획서 평가하기	사회
7-10	영상 촬영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촬영하는 법 배우기 - 영상 촬영의 기본 이해 - 녹음 하는 법 - 영상 편집하는 법 배우기 	시범영상 촬영 평가	국어, 실과

11-42	실제 여행 떠나기	• 안동 여행 떠나기 - 안동의 명소 탐험 - 안동의 맛 체험하기	ucc 제작하기	창체
		• 경주 여행 떠나기 - 경주의 명소 탐험 - 경주의 맛 체험하기		
		• 청도 여행 떠나기 - 청도의 명소 탐험		
		• 대구 여행 떠나기 - 대구의 명소 탐험 - 대구의 맛 체험하기		
43-50	영상 편집하기	• 촬영한 영상들 편집하기 - 촬영한 영상 자르기 - 영상에 음악 효과 넣기 - 영상에 녹음본 넣기 - 영상 완성하기	ucc 편집하기	미술
51	ucc대회 참가하기	• 대구 · 경북 ucc 대회 참가하기	공모전 영상 제출	
52	활동 수기 작성하기	• 대구 · 경북 활동 수기 작성하기	공모전 신청	

4. 동아리 활동 자료

여행지 선정 및 소개자료 만들기

활동예시자료









활동순서

1. 개인별 피피티 자료 제작하기
2. 장소 겹치는 팀끼리 모여서 최종 장소 선정하기
3. 여행 날짜 토의해서 정하기
4. 만든 피피티 가지고 부모님께 발표하고 확인서 받아오기

활동tip

1. 캔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피피티 자료를 만들 수 있게 지도한다.
2. 캔바라는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학기초부터 아이들과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캔바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3. 자신들이 직접 만든 피피티로 부모님앞에서 영상촬영을 하면서 영상 제작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준다.



영상 촬영하는 법 배우기

활동예시자료





활동순서

1. 영상을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
2. 휴대폰, 크롬북 등을 이용하여 영상 직접 촬영해보기
3. 영상 촬영 후 친구들과 영상 공유하면서 부족한 점 찾아보기
4. 간단한 영상 제작해보기

활동tip

1. 촬영팀, 편집팀을 나누어 역할 분담을 시킨다.
2. 영상편집은 캡컷 등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프로그램으로 안내해준다.
3. 영상촬영에 필수적인 도구인 삼각대는 구매해서 모둠별로 나눠주는 것이 좋다.

ucc촬영 및 대구 · 경북 여행하기

활동예시자료





활동순서

1. 자신이 세운 여행계획서대로 촬영지로 떠나서 촬영하기
2. 카메라, 휴대폰, 삼각대를 준비해서 여행지로 떠나기
3. 대구·경북의 맛과 명소에 대해서 촬영하기
4. 영상 만들어보기

활동tip

1. 화질이 좋은 영상을 위해 최신휴대폰, dslr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좋음
2. 편집은 아이들이 직접해보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선생님이 참여해서 도와주기
3. 영상음악부분과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지도한 후에 영상에 음악 넣기

5. 동아리 활동 결과물

1) ucc대회 참가 결과물



- 대구 · 경북 풀썸 ucc 공모전 참석
- 우수상1, 장려상 2 수상
- 우수운영사례 제출 및 학생수기 공모 참석

2) 학생수기 공모전에 참가한 글

① 달구벌의 흔적을 찾아서(대구관천초 김xx)

이번 여름 대구 경북 다시보기 꿀잼 ucc공모전을 통해 많은 대구의 재미있고 인기있는 대구의 명소를 가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근대역사관을 갔다 왔습니다. 대구근대역사관을 방문한 즉시, 이 건물이 처음은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1932년에 건립된 이 건물이 한때 조선 시대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1954년 이후에는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니, 건물이 근대 대구의 금융 및 산업 발전과 연관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어떻게 대구의 근현대사를 전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물 자체가 가진 역사적 가치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서는 대구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과 해설이 제공되고, 그를 통해 도시의 성장과 발전, 문화적인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때 은행으로 사용된 건물이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모습은 역사와 현대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의 변화와 역사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방문이었습니다.....(중략)

② 나의 대구·경북 ucc 동아리 체험기(대구관천초 김xx)

이 모든 곳들은 마치 역사의 책장을 넘기거나, 자연의 품에 안겨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주며, 대구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다. 그리고 이곳들은 오래 전의 시간을 간직하면서도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③ 대구의 숨은 매력, 그곳에서의 특별한 순간들(대구관천초 여xx)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대구를 여행했다.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과 새로운 경험을 남겨주었다. 우리가 대구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대구는 우리에게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했다. 화창한 날씨, 시원한 바람, 그리고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마치 우리의 대구 여행을 환영해 주는 것 같았다. 그런 대구의 분위기가 우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대구의 아름다움은 마음 깊숙이 간직해두고 싶은 순간들 중 하나로 남았다.....(중략)

6.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

2023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학교생활의 목표로 정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구·경북 동아리의 활동이다. 작년에 공문으로 보고 수상작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걸 아이들과 함께해보면서 올해 한해의 추억을 만들어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신청공문이 언제오나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공문이 오자마자 작성해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다. 4월 이후 아이들과 매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촬영을 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뜻깊었고 즐거웠다. 아이들도 대구의 명소와 맛집, 경북의 명소와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한해가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던 시간들이었다고 항상 이야기한다. 올해가 끝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쉽다고. 그만큼 이 동아리 활동이 나와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을 해주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ucc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목표로 촬영과 편집을 했지만 안타깝게 최우수상을 수상을 못했지만 우수상1, 장려상2를 타면서 올해 활동의 보람됨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대구·경북동아리 활동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있어 한해를 가장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동아리 시간인 것 같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아이들의 꿈과 추억을 위해서 꾸준히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에도 또 다른 학교에서 이 동아리를 신청해 지금 이 시간에 활동소감을 적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교사생활을 하는 내내 이 동아리를 신청해 해마다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 해동안 고생했던 아이들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며 올 한해의 추억을 마무리하려고 한다.